

■ 제주사회복지연구원, 복지기관 종사자 93명 '코로나 시국' 경험 인터뷰

# “취약계층 의식주 직격탄... 생존 위협”

### 대면 프로그램 중단 발달 장애인 상태 악화 등 다양 “돌봄기능 여의치 않은 가정 긴급서비스 제공 절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식사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이용자(신장 장애인) 중 일부가 끼니를 거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이용자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코로나19와 연관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에 영양 상태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니까...”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주거나 생활여건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됐어요. 목욕탕에 가시질 못하는데다 목욕할 수 있는 여건도 안돼서 오랜 기간 동안 씻지 못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개인 위생 확보도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제주 취약계층의 열악한 실태가 공개됐다. 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눈을 통해서다.

제주사회복지연구원에서는 최근 '코로나19와 사회복지분야 변화 방향성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3~5월 도내 사회복지기관(시설) 44개소에 종사하는 9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이 경험한 다양한 문제를 청취·수집해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다. 종사자의 기관별 현황은 노인 31명, 장애인 19명, 사회복지일반 및 법정단체 16명, 아동·청소년 15명, 일자리·노숙인·정신보건·다문화 12명 등이다.

인터뷰에서는 기관 휴관이나 사업 중단·연기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변화가 돌봄 대상자들의 삶 자체를 정신적·신체적으로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대면 프로그램 중단으로 발달장애인의 상태 악화 >방역 절차로 인한 신장장애인

투석 지연 및 식사 제공 서비스 중단 >각종 시설 폐쇄로 독거노인 위생 및 폭염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돌봄 대상자가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록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도 가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상 피로도를 묻는 질문에 '심해졌다'고 답한 경우가 84%에 달했기 때문이다. 피로도가 높아진 까닭을 묻는 질문(중복)에는 대면·비대면 서비스 병행이 40%로 가장 많았고, 감염 불

안감 37.3%, 대체 서비스 구성의 어려움 28%, 서비스 전달력 한계 22.7%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돌봄의 기능이 여의치 않은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복지서비스에 대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돌봄·복지영역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울러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관광객 사로잡는 유럽수국 4일 서귀포시 휴애리자연생태공원에 활짝 핀 유럽수국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국기자

## “현안·쟁점 도출... 제주교육 발전 모색”

### 도교육청, 교육자치 15년 성과·과제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남겨진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용역 입찰(제공고, 예산 4000만원)이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교육자치(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총괄)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법 단계

별 개정에 따른 교육자치의 성과 >15년 동안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정활동의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각 측면에서의 현안과 해소 방안을 주요 과업 범위로 하고 있다.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및 현안과 쟁점을 도출하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비판 속 존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이뤄진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 교육자치 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 당시 용역진은 교육위원회 제도개선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분리 독립해 별도의 교육의회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받는 교육의원 출신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수단들이 구비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연구 과정에서는 도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자치 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용역 완료 목표 시점을 12월 중으로 잡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드론에 찍힌 꽃자왈 조난자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 길 잃은 관광객 '드론'이 찾았다

### 화순 꽃자왈 탐방 관광객 119 조난신고 뒤 전화 끊겨 경찰·소방 드론 띄워 수색 숲속에 있던 신고자 발견

한여름 제주 꽃자왈에서 길을 잃은 60대 관광객이 경찰 드론에 의해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꽃자왈에서 관광객 정모(68)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화순 꽃자왈인데요”라고 말한 뒤 전화가 끊겼다.

이어 정씨의 휴대전화까지 꺼지면서 경찰과 소방은 수색전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깊은 숲을 자랑하는 꽃자왈의 특성 때문에 정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3일 오전 7시54분쯤 제주경찰청 드론팀에 수색을 요청했고, 드론팀이 드론을 띄워 수색한 지 23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50분쯤 화순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서쪽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정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정씨는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을 보고 손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화순 꽃자왈 탐방 중 길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발견 당시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 조치됐다.

한편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산하에 있는 드론팀은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훈련과 장비 구입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해 6월 본격 운영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17건의 수색 등 현장에 출동했다. 송은범기자

제주 초등학생들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 감사의 편지와 성금 등을 전달해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4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장전초등학교와 신제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물품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장전초는 6학년 2반 학생 18명이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와 성금 10만원을 전달했으며, 신제주초등학교는 6학년 김재은, 변하운 학생이 손편지와 간식(사탕·초콜릿·쿠키)을 전달했다.

편지 내용을 보면 “방호복 속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

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3일 오전 7시54분쯤 제주경찰청 드론팀에 수색을 요청했고, 드론팀이 드론을 띄워 수색한 지 23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50분쯤 화순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서쪽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정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정씨는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을 보고 손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화순 꽃자왈 탐방 중 길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발견 당시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 조치됐다.

한편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산하에 있는 드론팀은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훈련과 장비 구입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해 6월 본격 운영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17건의 수색 등 현장에 출동했다. 송은범기자

## “의사·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 장전·신제주초 어린이들 제주대학교병원에 손편지



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게요”라고 쓰여 있었다.

성금과 편지를 받은 제주대학교병원 은 각 학교에 30만원 상당의 화답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송병철 제주대학교병원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박혁진’ 제주도 선관위 상임위원은 제주도민을 속이지 말라

## 415총선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개최하라

박혁진 제주도 선관위 상임위원(이하 박 상임위원)은 지난 7월 11일자 '제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적의 선거관리시스템 조성을 주도한 선거정보관리 전문가로 소개되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박 상임위원은 '그간 제기되었던 관내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투표지 분류기, 부정선거 전자투표기 의혹, 사전투표조작 유포 등 모든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명백한 거짓말로 제주도민을 속이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등 선거관리시스템을 주도한 '전문가'라는데 주목해야만 한다. 작년 415총선은 사전투표에서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이 드러났다.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 을 재검표 현장에서 사전투표지 중 일명 배춧잎 투표지, 투표지 3장이 붙어있는 자석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져 일본 국기처럼 보이는 일장기투표지 등이 대량 발견되어 부정선거임을 명백히 확인시켜 주었다.

박 상임위원 자신이 제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설함에 있어, 한 치의 부끄럼도 없이 '공명하고 정당'하다면 '415 총선 공개토론회'에 응할 것을 속히 촉구하는 바이다.



6월 28일 인천 연수 을 재검표에 참여한 목격자들의 실명을 듣고 재구성한 투표지

2021년 8월 5일

## 제주자유수호연대 ·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제주자유수호연대 회원 모집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지키기 위한 단체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 제주자유수호연대 홍성광 사무국장 796-0111